



사전진단 예방이 최고!

1일 22시 27분쯤 강서구 화곡4동에서 남편이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졌으니 빨리 와 달라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.

이렇게 재난, 재해, 사고는 예고없이 나라이건, 가정이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.

◎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준비된 훈련의 결과

우리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면서 민방위 훈련 또는 군 경험을 통해 훈련을 하고 1년에 한·두 번씩은 건강체크를 위해 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나 기억하고 실천하는 마음 가짐은 적은 것 같다.

특히 응급환자 처치법은 알리고 하지 않거나 시간이 없어 마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.

우리나라 전국 소방서에만 약 1,080여대의 구급차가 있는데 1년에 90여만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다. 하루평균 2천6백여명.

환자 유형을 보면 사고부상, 급성질환, 만성질환, 임산부, 약물중독, 교통사고 등등 복잡하며, 진료과목 또한 내과, 외과, 소아과, 산부인과, 신경외과 등 이용이 다양하고 40대부터가 70%이상을 차지한다.

이제라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은 배워야하며 준비되어야 한다.

■ 환절기에 흔하게 접하는 순환장애에 대해서

심장과 혈관계를 통틀어 순환계(또는 심혈관계)라 부르며 혈류를 통해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. 이 순환계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애가 올 수 있다.

- 심한 출혈로 순환혈액이 줄어들어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인 뇌, 심장, 폐 등에 산소 결핍이 올 수 있다.

- 노화나 질병으로 순환계 기능의 장애가 올 수 있다.

○ 알아둘 것

응급처치술은 심장과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.

- 가벼운 사고(실신)는 반드시 회복을 시킨다는 전제가 있고, 심한 경우(심장마비)에 구조자의 역할은 전문구조자가 도착할 때 까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.

- 맥박(1분당 횟수, 강한지 약한지(강도), 리듬(일정한지 아닌지) 성인 분당 60~80회, 소아는 빠르다, 매우 강한 성인은 느릴 수도 있다.

- 빨라지는 경우 - 운동, 공포, 열, 출혈, 질병에 의해.
- 느려지는 경우 - 실신, 심장병, 뇌 압박.

○ 구조자가 명심해야 할 것

- 중요기관에 혈액공급이 잘 되도록 환자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. 심장병이 있는 환자는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.

- 혈액순환, 호흡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취한다.
- 환자를 편하게 하고 안심시킨다. 공포와 공황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킨다.

- 매우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급차 등 전문 구조를 요청한다.

○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

- 혈액에 의해 운반되는 산소는 적혈구 감소(빈혈)나 폐의 산소부족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.

- 빈혈은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은 피부를 청색으로 만든다.(청색증)

- 동맥경화 같은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을 파열시켜서 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.

- 혈액의 순환장애, 혈관의 경화, 좁아진 혈관 등은 혈전을 유발 순환기 내를 순환하다 한곳에 머물러 막히게 된다.(색전증)

- 혈압이 떨어지면(실혈 등) 전신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아서 중요한 기관에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쇼크에 빠지게 된다.

응급처치

◎ 쇼크 (Shock)

순환계의 기능에 따라 장애가 생기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불충분해져서 쇼크가 발생한다. 쇼크를 빨리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다면 생명유지에 중요한 기관이 기능을 잃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.

● 발생원인

1) 심장의 펌프기능이 약해져 순환혈액이 감소될 때 발생- 심근경색

2) 순환 혈액량이 감소될 때 - 외출혈, 내출혈, 심한설사, 구토, 화상 등 신체의 수액이 감소할 때가 가장 많은 원인이다.

● 증상

1) 빠른 맥박

2) 창백하고 회색빛 피부(특히 입술안쪽), 손톱이나 귓바퀴를 눌렀을 때 색의 회복이 늦다.

3) 식은 땀, 차갑고 끈적끈적한 피부.

4) 쇼크가 진행되면

-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.

- 구역질과 구토, 목마름

- 빠르고 얇은 호흡

-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. 혈액량의 반이 소실되면 손목의 맥박이 없어짐.

5) 뇌로가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면

- 안절부절 불안해하고,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.

- 하품을 하거나 혈떡거리기도 한다.(공기 갈망증세)

- 의식장애, 마침내 심장정지 발생.

● 응급처치

1) 외부출혈 등 할 수 있는 치료를 시작한다.

2) 환자의 머리를 아래로 놓는다.(의식 잃는 것 방지)

3) 환자의 다리를 들고 지지한다.(혈액공급 원할)

4) 목, 가슴, 허리에 압박을 주는 끈 끼는 옷이나 가죽 띠, 벨트 등을 느슨하게 한다.

5) 환자를 추위에서 보호한다.(뜨거운 것 금기, 외투나 담요로 덮어준다)

6) 호흡, 맥박, 의식을 자주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.

● 주의사항

-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, 먹거나, 마시거나, 담배를 피우거나 하지 않게 한다.

- 환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입을 물로 축여준다.

- 환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안심을 시킨다.

◎ 실신

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잠시 의식 소실이 오는 것으로 쇼크와는 달리 맥박이 늦어지며 신속하고 완전하게 회복된다.

● 응급처치

1)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올려 받쳐준다.

2)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게 한다.

3) 회복되면 환자를 서서히 앉도록 한다.

4) 실신으로 생긴 상처가 있는지 보고 치료한다.

5) 두 번째로 실신할 것 같으면 머리를 무릎사이에 두고 천천히 숨을 쉬게 한다.

◎ 심근경색

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됐을 때 가장 흔히 발생한다. 많은 환자들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, 가장 큰 문제는 심장마비가 유발되는데 있다. 혈전용해제가 도움을 준다.

● 응급처치

1) 환자를 안정시킨다. 반쯤 앉은 자세로 머리와 어깨를 기대고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가장 좋다.

2)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아스피린 한 알을 주고 천천히 씹도록 한다.

3) 응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한다.

◎ 심장마비


심장마비는 심장박동이 갑자기 정지하는 것이다.

심근경색이 원인일수도 있으나 심한 출혈, 질식, 전기쇼크, 약물과용, 저체온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.

산소공급이 안되면 뇌가 갑작스럽게 파괴되므로 진단이 되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한다.

● 응급처치

호흡과 맥박을 측정하여 모두 없으면 응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.

구급계 응급구조사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순환장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개개인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다. 배울 것은 배우고..... 

지 명 천 (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)